

인체해부에 큰 관심 가진 유학자 ‘전유형’ (全有亨 1566~1624)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서양의 의학 발달이 상당 부분 해부학 발전과 관련되었던 것과는 달리, 동양 의학은 해부학과는 거리가 멀다. 허준(1546~1615)이 편찬한 동의보감에는 '신체와 내장 그림'이 하나 있으나 그 내용이 보잘 것 없다. 그만큼 동양 의학의 인체 구조에 대한 지식은 초라했던 것이다. 특히 이 그림을 서양에서 이미 발달하고 있던 인체에 대한 지식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1543년에 나온 베살리우스(1514~64)의 '인체 구조에 대하여'라는 해부학 책을 살펴보면 당장 알 수가 있다. 1610년에 나온 동의보감의 인체 해부도 한 장과 300장의 상세한 인체 각 부분의 그림을 가진 1543년의 '인체 구조에 대하여'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성호사설, '전유형이 시체 세 번 해부' 기록

이렇게 동양사회에서 해부학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효도에 대한 지나친 생각이 한몫을 했다. 사람의 몸은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이니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효의 근본이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해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체를 해부하는 일조차 금기로 여겨져 왔고, 16세기까지 우리 역사에는 아예 시체 해부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조선의 선비 전유형(全有亨 1566~1624)이 임진란(1592~98) 중에 시체 3구를 해부했다는 기록은 놀랄 만한 일이다. 이런 사실을 처음 기록해 남긴 사람은 실학자로 널리 알려진 이익(1681~1763)이다. 전유형 자신의 문집 '학송집'이 남아 있지만, 막상 본인은 이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이익은 그의 글을 모아둔 '성호사설' 가운데 이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다. 이 문집에는 아주 방대한 내용이 수많은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가

운데 '오장도'라는 글 속에 전유형의 해부 사실이 전해진다. 중국에서의 시체 해부에 관한 기록을 조금 전한 다음, 이익은 우리나라에서는 임진란 때 전유형이 시체를 세 번 해부했다고 전한 것이다.

참관 전유형은 원래 의술에 밝아 책을 짓기도 했는데, 특히 임진란 때는 시체 해부를 세 번 해서 그 방면의 지식을 크게 넓혔다는 것이 이익의 글 내용이다. 하지만 전유형이 비명에 죽음을 당한 것도 사실은 이런 시체 해부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이익은 쓰고 있다. 바로 '성호사설'의 이 기록 때문에 20세기의 필자들은 전유형이 '일본군' 시체 3구를 해부했다는 해석을 덧붙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가 해부했다는 시체가 일본 군인이었는지, 조선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 그가 이 해부 경험을 기록해 남겼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성호사설에 '오장도'라는 제목 아래 중국의 경우를 말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또 그가 의학에 밝고 의학책도 썼다는 같은 항목에서의 기록으로 볼 때 전유형은 해부를 했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간단한 문집 '학송집'에는 그런 흔적은 없고, 또 그가 지은 의학책이 따로 남아 있지도 않다. 그가 그렸을지 모르는 해부도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상소문으로 선조 주목받아 관직 올라

여하튼 우리 역사에 특이한 해부학의 창시자로 남을 전유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광해군 때 형조참판(차관급)까지 올랐던 조선 시대의 전형적 유학자이며 관리였다. 평강 전 씨인 그는 충북 괴산의 유생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1594년(선조 27) 청안현감에 임명되었다. 청안은 지금 괴산군의 일부지만, 당시에는 독립된 현이었다.

그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올린 상소문이 선조 임금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을 보면 1593(선조 26)년 7월 20일 괴산의 유생 전유형이 왜적을 막는 일 등 10개조에 걸친 상소문을 올렸고, 선조가 "학식이 해박하고 병기까지 통달하여 근래의 다른 상소에 비할 바가 아니니 어찌 초야의 기사가 아니겠는가" 라면서 그를 불러 쓰자고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에게 선조는 군자감 참봉 자리를 주었고, 당대의 재상 유성룡도 그를 추천한 것으로 전한다. 그가 조헌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왜군에 대항했다는 것도 이 때의 일이다. 그런데 이 시기 왜란이 1년을 지난 상태에서 그는 아주 특이한 계략을 내놓기도 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가등청정은 풍신수길에게 심복하지 않는 인물이니, 스파이를 동원하여 그를 후원하면 일본군은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 자멸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가등청정의 군대는 소서행장의 군대보다 2배나 되는데, 조선이 가등을 지원하면 가등은 소서행장의 군대를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되면 위협을 느낀 풍신수길은 가등의 부모와 처자식을 죽여 없애버릴 터이고, 두 사람은 죽기 살기의 싸움을 하게 될 터이니, 어느 겨를에 우리를 도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계책에 대해 비변사는 아직 일본군의 내부 사정을 잘 알 수도 없고, 마침 명나라에서 군대가 와있으니 아직 그런 계책을 써볼 단계는 아니라고 임금에게 자문했다. 1595년 5월 26일의 '선조실록'이 전하는 내용이다.

그 직전 이미 그는 청안현감에 임명되었고, 충청도 조방장을 겸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상당히 국방에 공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때까지 과거에 급제한 일은 없었던 전유형은 나이 40이던 1605년(선조 38)년 6월 문과 정시에 장원급제했고, 바로 감찰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합격은 바로 그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는 선조의 주목을 받아 관직에 오르던 초기에 연달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을 당했는데, 기복시키라는 임금의 평계를 대며 계속 관직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상을 당하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던 시절이었다. 그는 부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관직을 받아 쟁겼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사간원의 탄핵 아래 일단 관직에서 밀려났고, 광해군(1575~1641; 재위 1608~23)의 즉위와 함께 다시 관직에 나섰다. 그 후 함흥관관 등 외직을 거쳐 병조참의·광주목사·형조참판 등을 지냈

다. 이이첨을 탄핵하는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의학자로 두각 나타내 광해군 치료하기도

바로 이 시기에 특히 그는 의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1612(광해 4)년 10월 7일 기록에 의하면 그때 전유형은 이미 광해군의 질병 치료에 참여하고 있었고, 또 당시의 의사 양성에도 큰 몫을 하고 있었다. 이미 당시의 대표적 의사 허준은 나이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의사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론을 근거로, "전군수 전유형은 의술이 가장 정치하고 밝으니... 뽑은 의관 등을 이들에게 나누어 교육시키지"고 내의원이 건의한 기록이 남아 있다. 1523년까지 그의 이름은 의사로서 계속 등장한다. 그는 왕과 왕비의 치료를 담당해 상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전유형은 유능한 의사로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그가 인체를 해부했다는 기록은 '실록' 등에도 보이지 않는다.

1623년 3월 광해군이 쫓겨 가고 인조(1595~1649; 재위 1623~49)가 왕위에 오른 다음 전유형은 문안사로 발탁되어 명나라 장군 모문룡에게 가서 조선이 중국군의 군량을 계속 대기 어렵다며 그 감면을 청해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이괄(1587~1624)의 난이 일어나자 거기 내응하였다 하여 아무 절차 없이 전유형 등 37명이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 4년 뒤 신원되어 그에게는 이조판서가 추증되고, 1742년(영조 18)에는 괴산의 화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자는 숙가, 호는 학송. 저서로는 '학송집' 1권이 전한다. 시호는 의민이다.

전유형이 시체를 해부한 일이 있다는 기록은 우리 역사에 아주 희귀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흔적 어느 곳에도 그가 시체를 해부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 한참 뒤에 살았던 이익만이 그런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해 남겼을 뿐이다. 그에게 보낸 편지는 비록 아주 간단한 편지 정도지만 유성룡의 '서애집'에도, 김충선(1571~1642)의 '모하당집'에도 보인다. 유성룡은 당시의 대표적 재상이었고, 김충선은 원래 사야가라는 일본 군인이었는데, 임진왜란에 가등청정의 좌선봉장으로 침입했다가 조선의 풍속과 문물에 반해 조선인이 되어버렸다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또 실학자 황윤석(1729~91)은 전유형의 문집에 글을 써주기도 했다.

여러 가지로 이름을 남기고는 있지만, 이괄의 난에 연루되어 갑자기 죽은 전유형에게는 자신의 해부학을 기록해 남길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유감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다. ㉮